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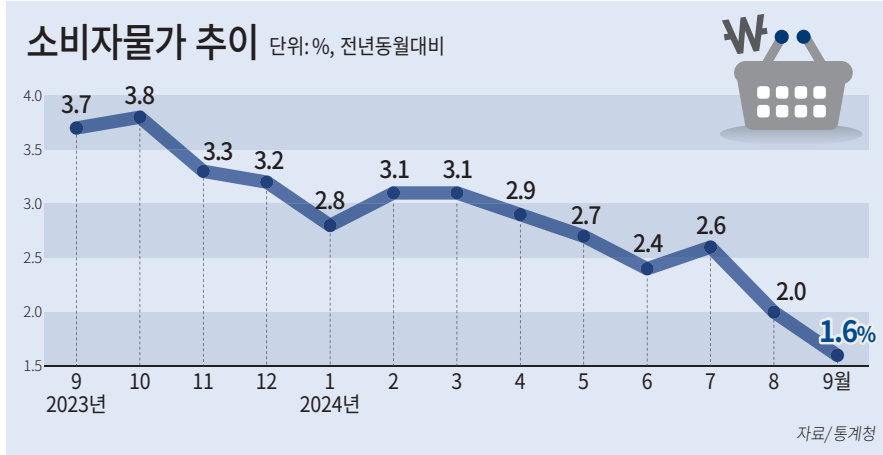
# 엇갈리는 금리 전망... 전문가들 “물가대응 등 인하 가능성”

## 한은 주중 기준금리 결정

소비자 물가 안정세... 美 빅컷  
가계부채, 집값 상승 등 변수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이번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과 인하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보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불안이 커지는 만큼 오는 11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1년 8월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2023년 1월 연 3.5%까지 올린 뒤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통위는 이달 11일을 제외하고 오



는 11월 28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한은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해 민간소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올 3월 3.1%에서 6월 2.4%로 떨어진 뒤 9월 1.6%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며,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았다.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며 목표치

를 하회하는 등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기 상황이 부진해지자 지갑문을 닫는 소비자는 늘었다. 상품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지수)는 8월 기준 102.2로 1년전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1월을 전년동월 대비 1.4% 상승한 뒤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했다.

투자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건설기성은 5월 4.6% 감소 이후 4개월째 마이

너스다. 설비투자도 지난 8월 전월 대비 5.4% 줄었다.

오는 11월까지 현 3.5%의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달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기준 730조9671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5조6079억원 늘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과 비교해선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8월 6억8451만원으로 한달전(6억7620만원)과 비교해 1.23% 상승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하고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

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낮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기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조용구 신용증권 연구원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까지 둔화하고, 미국도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며 “정부의 규제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애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하는 등 물가상승 우려는 약해졌지만, 성장 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은도 경기와 물가대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논란

# “현행 대비 20~50대 수령액 7000만원 감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도입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현행 제도 대비 약 7000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자동조정장치가 재정 지속성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급액 감소는 필연적이지만, 미래 세대가 받게 될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중인 20~50대의 가입자가 미래에 받게 될 금액이 약 7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도입한 ‘자동 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036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할 경우 그 해부터 65세가 되는 1971년생이 2060년까지 25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연금액 100만원, 물가상승률 2% 기준)을 기준으로 약 3억 8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까지 약 7000만원 줄어든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정부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드는 연금개혁”이라며 “국회 논의 시 자동삭감장치나 다름없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에도 불구하고(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없이는) 미적립 부채(재원 부족에 따라 다음 세대가 메꾸게 되는 잠재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LG에너지솔루션 비전공유회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구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 ‘무음극·흑연계’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총력

» 1면 ‘LG에너지솔루션 비전...’서 계속

아울러 시장을 혁신할 차세대 전지 기술 리더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고체 전지의 경우 리튬 음극을 뺀 ‘무음극’ 제품 및 ‘흑연계’ 음극 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다. ‘바이폴라’ 반고체 전지 및 황·소듐을 적용한 저가 고효율 제품, 리튬금속을 활용한 항공용 경량 제품도 양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 자동차·소형·ESS 등 사업부 별 미래 시장 선도할 핵심 전략 발표

자동차·소형·ESS 등 핵심 사업부별 중장기 시장 세부 전략 발표도 이어졌다. 자동차전지사업부는 ‘근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북미 시장 확고한 1등 구축 및 유럽 시장 지위 강화’를 중장기 목표로 한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2026년까지 글로벌 생산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기차 캐즘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2028년에는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처형 제품, 건식전극 공정 활용 LFP 제품 등을 통해 소재, 공정, 제품의 차별적 우위를 공고히 하고, 2030년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지역·고객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소형전지사업부에서는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 압도적 1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빌리티 환경에

최적화된 46-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양산하여 다양한 차종에 대응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동공구·청소기·B BU(배터리 백업 장치) 등 고효율 제품 및 AI 데이터 서버 등 신규고객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ESS전지사업부 또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8년에 미국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ESS 시스템 통합(SI) 글로벌 톱 3를 달성해 5배의 매출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단계별로는 2025년 미국 ESS 셀 생산 본격 양산을 필두로 북미 시장을 선점에 나서고 고용량, 장수명의 신제품 출시와 LGES 버텍스 등을 통한 SI 역량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 달성을 위해 ▲성장(Power of Growth) ▲도전(Power of Challenge) ▲실행(Power of Action) ▲협업(Power of Collaboration) 핵심가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업계 리더로서 위상을 지켜낼 것”이라며 “서로가 서로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응원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나긴 여정은 더 멋진 풍경과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비용 효율화·수익성개선... 비상경영 ‘고삐’

» 1면 ‘임대료 줄이자...’서 계속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 가치가 높은 강남 대치동 본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전 시기나 장소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에 있던 본사를 강동구 이스트센트럴타워로 옮겼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본사 이전을 통해 임대료를 약 40%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스트센트럴 타워 보증금이

20억원대로, 시그니처타워의 보증금인 4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코리아세븐의 사옥 이전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세븐일레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44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다. 물류비용상승, 합병 등으로 영업수익성이 감소되면서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PB브랜드를 키우는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은역시 임대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7월 사옥을 롯데월드타워에서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했다. 롯데은

은 2020년 출범 후 4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해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업을 축소해나가고 있다.

이밖에 11번가는 지난달 서울역 인근 본사를 경기도 광명시 유플래닛 타워로 이전했다.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다. 이에 앞서 11번가는 지난해부터 사업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희망 퇴직을 받은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자 업계가 수익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위해 가장 먼저 축소하는 게 임대료와 인건비다. 당분간 기업들의 본사 이전 움직임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